설 가정 예배 순서지 (2026.2.17.)

◎ 예배부름/신앙고백 : 인도자

지금부터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 송 : 다같이 / 455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기 도 : 인도자

◎ 성경 말씀 : 다같이 / 마태복음 18장 21~22, 35절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말씀 나눔 : 인도자 /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뒷면 참조)

◎ 찬 송 : 다같이 /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2026.2.17.)

◎ 말씀 나눔 : 인도자 /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도, 스스럼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를 바르게 할 다른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신이 입힌 상처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또한 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온전히 용납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닮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한 영적 발자취를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용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만함, 죄책감, 후회를 치워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해외 선교사나 갑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지금 나누면 됩니다.

영혼의 쓰레기를 은폐하고 없는 양 꾸민다고 우리의 심령을 부식시키고 목을 조르는 오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지은 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찌들고 묵은 때를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영적 때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 준 사람에게 쉽게 자비를 베풀고, 상처 입힌 사람에게 쉽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결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면,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면 변혁된 삶을 살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잠 3:34).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사랑할 능력을 간구할 때, 그분은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빈 자리를 은혜로 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설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들의 발이 그러한 은혜의 발자국이 남기를 소망합니다.